

티에링(鐵嶺)방언 정도부사 비교 연구

-賊·倍兒·老·忒를 중심으로*

李學順·嚴翼相**

차 례

1. 들어가며
2. 賊·倍兒·老·忒의 어법기능과 의미특징
3. 賊·倍兒·老 와 很의 비교
4. 맺음말

1. 들어가며

1.1 연구 목적과 동기

베이징(北京) 사람이 동북지역을 방문했을 때, 그 지역 사람들이 말할 때마다 '찌이'(賊)를 사용해서, '동북지역에는 참 도둑이 많은가 보구나!' 생각하며 돌아왔다는 우스개 소리(笑話)가 있다. 이것은 표준어에서는 '賊'가 명사로서 '도둑, 도적'이란 뜻이지만, 동북지역에서는 정도부사로서 '매우, 아주'의 의미로 빈번하게 사용되기 때문에 생긴 말이다. 이처럼 방언에 따라 쓰이는 어휘가 다르며, 그 의미에서도 차이가 있다. 티에링시(鐵嶺市)은 지리적으로 선양시(沈陽市)와 1시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작은 도시이지만 유명한 개그맨 자오 췌산(趙本山)으로 인해 매우 유명

* 이 논문은 2007년 한양대학교 대학원 중문과 BK21 연구비 지원으로 연구되었음.

** 제1저자: 한양대학교 대학원 중어중문학과 BK21 석사과정생, xueshun@hanmail.net

제2저자: 한양대학교 대학원 중어중문학과 BK21 참여교수

하며 중국에서 티에링(鐵嶺)을 모르면 간첩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연구는 주로 표준어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으며, 특정 방언에서만 사용되는 어휘나 어법 특징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상황이다.

창 춘민(常純民 1983: 153)은 동북지역에서 사용되는 정도부사로 '賊·精·稀·老·溜·確·惡·杠·忒·可·死'를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동북지역 전체에서 사용되는 정도부사의 예들이지, 특정한 지역에서 동시에 쓰이는 것은 아니다. 이 논문에서는 구체적으로 동북지역 가운데 티에링(鐵嶺) 방언을 조사대상으로 삼아, 이 지역에서 자주 쓰이는 정도부사 '賊·倍兒·老·忒'를 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이들 정도부사의 어법기능과 의미특징을 살펴보고, 이들 사이에 정도급(degree scale)의 차이는 어떠한지 분석해보겠다. 그리고 티에링(鐵嶺)의 정도부사 '賊·倍兒·老'와 표준중국어 정도부사 '很'과의 비교를 통해서 표준어와 방언간의 차이를 알아보고자 한다. 본문에 인용된 예문 중 방언과 관련된 예문은 대부분 저자가 평소에 사용하고 있는 것이며 본문의 저자는 바로 본문의 내용에서 다루게 된 티에링(鐵嶺) 사람으로서 어려서부터 티에링(鐵嶺)방언을 구사하였다. 또한 일부 예문은 商務印書館에서 출판한 《(고대한어사전)古代漢語詞典》과 인터넷에서 인용한 것이다.

1.2 지리 및 인구 현황

티에링(鐵嶺)시는 랴오닝(遼寧)성 북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총 면적은 1.3만km²이며 인구수는 305만 명이다. 지리적으로 동경 123° 27'~125° 06', 북위 41° 59'~43° 29'에 위치한다. 티에링(鐵嶺)시의 동서 길이는 134km이고, 남북은 162km이다. 동서남북으로 랴오위엔(遼源)시, 선양(沈陽)시, 푸순(撫順)시, 쓰핑(四平)시와 인접해 있다. 역사 기록에 의하면 상(商)나라 때부터 사람이 거주하고 있었고 주로 거란족·여진족·만주족이었으며, 11세기부터 많은 한족(漢族)이 이곳으로 이주하였다. 현재 인구비율은 한족이 79%로 240만 명이며, 소수민족은 21%인 65만 명이다.¹⁾

1) 티에링(鐵嶺)시의 지리 및 인구현황은 티에링(鐵嶺)시 홈페이지(<http://www.tieling.gov.cn>)의 자료를 근거하였다.



<그림 1. 중국 라오닝(遼寧)성 지도>

2. 賊·倍兒·老·忒의 어법기능과 의미특징

주 떠시(朱德熙 1982)는 부사어로만 쓰일 수 있는 허사(虛詞)가 바로 부사라고 정의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왕 리(王力 1985)는 부사 가운데 상태의 정도를 표시하는 것을 정도부사(程度副詞)라고 하였으며, 절대적 정도부사와 상대적 정도부사로 나누고 있다. 절대적 정도부사는 '極·很·怪·頗·稍·太' 등이며, 상대적 정도부사로는 '最·更·越' 등이 있다. 정도를 표시하는 부사는 주로 형용사를 수식한다. 형용사란 사람, 사물의 형상, 성질 혹은 상태 등을 나타내는 낱말이다. 장 즈공(張志公 1985)은 어휘의미를 중시하여 형용사 가운데 형상을 표시하는 것을 형상형용사(形狀形容詞), 사람 혹은 사물의 성질을 나타내는 것을 성질형용사(性質形容詞), 동작이나 행위 등의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를 상태형용사(狀態形容詞)라고 하였다. 주 떠시(朱德熙 1982)는 그 문법의미를 중시하여 성질형용사(性質形容詞)와 상태형용사(狀態形容詞), 두 부류로 나누고 있다. 성질형용사란 사물의 속성을 나타내며 판단성이 있는 형용사를 말하며 상태형용사는 사물의 상황, 상태 등을 나타내며

뚜렷한 묘사성을 가지는 형용사를 말한다. 예를 들면 성질형용사로는 ‘小·大·壞·胖·高·漂亮·高興·傷心’ 등이 있다. 상태형용사로는 ‘雪白, 可憐巴巴·老老實實·筆直·飛快·綠油油·老實巴焦’ 등이 있다. 이 논문에서는 주 떠시(朱德熙)의 분류법을 따라 형용사를 성질형용사와 상태형용사로 분류한다. 정도부사는 또한 인간의 심리활동을 표시하는 동사 즉 심리성 동사를 수식한다. 또한 정도부사는 조동사 혹은 일부의미가 하나의 형용사에 해당하는 빈어를 갖춘 동사 단어결합 즉 동빈구조를 수식하기도 한다.

티에링(鐵嶺)방언에서 사용 빈도수가 높은 정도부사는 ‘賊·倍兒·老·忒’인데, 모두 절대적 정도부사로서 구어(口語)에서 많이 쓰인다.

2.1 賊

‘賊’은 관화방언(官話方言)지역에서 많이 쓰이는 정도 부사이며 티에링(鐵嶺)방언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쓰이는 정도부사이다. 관화방언(官話方言)지역 이외에 오방언(吳方言) 지역에서도 사용하고 있다. 보통 형용사 앞에 쓰여 정도가 높음을 표시한다. ‘매우, 아주, 몹시’와 같은 정도부사로 사용되고 있다.

- (1) a. 趙本山的小品賊好看, 看了一遍還想看。
자오 썬산의 개그는 아주 재미있어서 한번 보면 또 보고 싶다.
- b. 運動會在平頂堡那疙瘩(哪兒)進行得賊熱鬧。
체육대회가 평딩푸에서 아주 떠들썩하게 열렸다.
- c. 外邊冰天雪地的賊冷, 不過屋裏賊暖和。
바깥은 얼음과 눈으로 뒤덮혀서 매우 춥지만 집안은 매우 따뜻하다.
- d. 我媽媽做飯賊好吃。
우리 어머니가 지은 밥은 매우 맛있다.
- e. 老王每天晨練, 身體賊結識(健康)。
라오왕은 매일 아침운동을 해서 아주 건강하다.

위 예문에서 우리는 티에링(鐵嶺)방언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정도부사 ‘賊’은

표준중국어의 정도부사 '很'처럼 일반적으로 성질형용사와 결합하여 사용되며 형용사의 음절수에 상관없이 결합하여 사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일부 심리성 동사 또는 조동사, 동빈 구조와도 결합하여 사용된다. 부정할 때는 '不'를 사용해야 하며 형용사나 동사 앞에 위치해야 한다.

- (2) a. 僕子賊小氣，吃飯前兒從來不掏腰包。
 지에쓰는 매우 인색해서 밥값을 한 번도 내지 않는다.
- b. 老王的女兒賊會唱歌，今年又拿了全縣第一名。
 라오왕의 딸은 노래를 아주 잘 불러서 금년에 또 현에서 1등을 하였다.
- c. 這孩子賊孝順，每月掙的錢只留下生活費，其餘全部交給父親。
 이 아이는 효성이 매우 지극하여 매달 월급에서 생활비를 제외하고 모두 아버지께 드린다.
- d. 老師對我賊好，賊關心我的學習、生活。
 선생님은 내게 매우 잘해 주시며 나의 학습과 생활을 매우 관심한다.
- e. 這玩意兒賊不結實，沒用幾天就壞了。
 이것이 매우 튼튼하지 않아서 며칠 쓰지도 않았는데 벌써 망가졌네.

위 예문을 통해서 우리는 '賊'가 성질형용사, 일부 심리성의 의미자질이 있는 동사, 조동사 및 동빈 구조 등과 결합하여 사용됨을 알 수 있다. 또한 문장 속에서는 술어의 위치에 위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어, 상황어, 한정어로도 사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 (3) a. 他的小女兒賊聰明。(술어)
 그의 딸은 매우 영리하다.
- b. 他賊親切的跟我們打招呼。(상황어)
 그는 아주 친절하게 우리와 인사를 했다.
- c. 他有一個賊漂亮的女朋友。(한정어)
 그는 아주 예쁜 여자친구가 있다.
- d. 那女的長得賊醜(醜)。(보어)
 그 여자는 매우 못생겼다.

‘賊’는 또한 여러 개의 변형된 형태가 있다. 예를 들면 ‘賊拉·賊拉的·賊拉拉·賊拉拉的·賊得拉的’와 같은 변형된 형태가 있다. 하지만 티에링(鐵嶺)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변형된 형태로는 ‘賊拉·賊拉拉’가 있으며 반복하여 사용하기도 하는데, 반복할 때에는 뒤에 的가 따라 붙기도 한다. ‘賊拉·賊拉拉’를 사용하면 ‘賊’를 사용하는 것보다 문장이 더욱 생동감 있고 의미가 강조된다.

- (4) a. 這件大衣面料賊好，穿起來賊拉舒服。
이 외투의 원단은 아주 좋아서 입으면 아주 편하다.
- b. 這孩子把屋造(弄)得賊拉埋汰。
이 아이가 집안을 매우 어지럽혀 놓았다.
- c. 鐵嶺的環路公共汽車開得賊啦慢賊啦慢(的)，像個老黃牛。
티에링의 순환버스는 황소처럼 정말 느리다.
- d. 他來鐵嶺沒幾天，可是鐵嶺話說得賊啦溜(流利)。
그는 티에링에 온지 몇 일 안 되었는데 티에링 방언을 아주 유창하게 한다.
- e. 趙本山演的小品(買車)賊啦逗，笑得我肚子疼。
자오 뱌산의 개그 〈자전거 팔기〉가 아주 재밌어서 배가 아플 정도로 웃었다.

2.2 倍兒

‘倍’의 본의는 배반하다. 모반하다이다. 《설문해자(說文解字)》에서는 “倍，反也。(倍는 뒤집다는 뜻이다)”라고 하였으며 단옥재(段玉裁)의 주석에 의하면 “引申之爲加倍之倍，已反者覆也。覆之則有二面，故二之曰倍。(인신하여 ‘加倍(배로 늘어난다)’의 ‘倍’字가 되었는데, ‘反’이라는 것은 ‘覆(뒤집히다)’는 뜻이다. 뒤집힌다는 것은 곧 두 가지 면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두 가지 면을 ‘倍’라고 말한다.)”라고 하였다. ‘倍’가 허사로서 부사어의 용법은 선진(先秦)시대 때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하지만 주로 동사 앞에 사용되었으며 어떤 동작이나 행위를 배로 한다는 의미다. 지금 표준어에서 ‘倍’는 양사로서 주로 ‘배, 곱절, 갑절’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티에링(鐵嶺)에서도 兒化하지 않고 ‘倍’만을 사용하면 표준어와 같이 ‘배, 곱

절, 갑절'의 의미를 지니게 된다. 예를 들면 “他的收入比我多兩倍” (그의 수입은 나보다 2배 더 많다). 오로지 '배'를 兒化해야만 정도부사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이를 兒化하여 정도부사로 '매우, 아주'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것 또한 '배, 곱절' 등 의미로부터 전의하여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兒化를 함으로서 실사에서 허사로 虛化하여 정도부사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배兒' 또한 절대적 정도부사이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5) a. 我們倆從小就一起上學，倍兒鐵（親）。
우리 둘은 어려서부터 같이 학교 다녀서 매우 친하다.
- b. 大熱天的，天天下地幹活曬得倍兒黑。
더운날 매일 밭에 일하러 가서 아주 검게 탔다.
- c. 吃飯倍兒香。
밥을 아주 맛있게 먹는다.
- d. 身體好點兒了嗎？今天看起來倍兒精神。
몸은 좀 좋아 졌어? 오늘 아주 활기있어 보인다.

'배兒'은 주로 형용사와 결합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단음절과 다음절 모두 사용 가능하다. 또한 일부 동사와도 결합되어 중복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을 더욱 강조할 수 있다. 하지만 이때 '배兒'을 단독으로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따라오는 형용사와 함께 반복해 주어야 하며 반드시 '的'을 사용해야만 문장이 성립된다.

- (6) a. 下雪下得外邊倍兒冷倍兒冷的。
눈이 내려서 바깥이 매우 춥다.
- b. 這香瓜倍兒甜倍兒甜的，真好吃。
이 참외가 아주 달아서 정말 맛있다.
- c. 皮鞋擦得倍兒亮倍兒亮的，像新的一樣。
구두를 아주 깨끗이 닦아서 마치 새것과 같다.

2.3 老

티에링(鐵嶺)에서 사용되고 있는 또 다른 정도부사로는 ‘老’가 있는데 표준어의 ‘很’에 해당된다. 표준어에서 ‘老’의 용법에 대해 루 지엔밍, 마 전(陸儉明·馬真 1985)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老’의 의미는 ‘很’과 같지만 ‘很’은 동사성분을 수식할 수 있지만(很喜歡·很希望·很有辦法 등) ‘老’는 동사성분을 수식할 수 없다. 또한 형용사 수식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어 ‘老’는 단지 큰 것을 나타내는 제한적인 몇 개의 정도를 나타내는 단음절 형용사 (大·長·沉·重·肥·高·粗·厚·寬·遠·多·硬·燙 등) 만 수식할 수 있다. ‘很’은 이런 제한이 없다. 하지만 티에링(鐵嶺)에서 ‘老’는 성질형용사 뿐만 아니라 동사성분도 수식할 수 있다. 또한 단음절 형용사 이든 단음절 형용사이든 상관없이 모두 ‘老’와 결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창 춘민(常純民 1983)에 의하면 ‘老’는 중심어에 대한 선택이 있어서 주로 크고 강하고, 높고 깊은 의미의 형용사만 수식할 수 있으며 작고 가늘며 약한 의미의 형용사는 수식할 수 없다고 하였다. 예를 들면 ‘河水老深了.’는 맞는 문장이나 ‘*河水老淺了.’는 사용할 수 없는 비문이라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티에링(鐵嶺)방언에서는 이 두 종류의 문장을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모두 맞는 문장이다. 즉 피수식된 형용사가 긍정적인 의미이든 부정적인 의미이든 상관없이 모두 ‘老’의 수식을 받을 수 있다.

- (7) a. 今天天氣老好了。
오늘은 날씨가 매우 좋다.
- b. 河水老深了。
강물이 매우 깊다.
- c. 他個子老矮了。
그는 키가 매우 작다.
- d. 學校裏我家老遠了。
학교는 우리 집으로부터 매우 멀다.
- e. 這孩子期末考了個第一，老得意了。
이 아이는 기말시험에서 1등을 해서 아주 신났다.
- f. 我老喜歡看木狗戲(木偶戲)了。

나는 인형극 보는 것을 매우 좋아한다.

위의 예를 통해서 티에링(鐵嶺)에서 ‘老’는 성질형용사 뿐만 아니라 일부 동사와도 결합하여 사용됨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런 문장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기조사 ‘了’와 함께 사용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즉 ‘老…了’의 형태로 사용해야만 문장이 성립된다. 문장성분으로 보면 ‘老’는 문장 속에서 술어뿐만 아니라 보어의 역할도 할 수 있다.

- (8) a. 東北的二人轉老有意思了。(술어)
동북의 얼린주안은 매우 재미있다.
- b. 他的聲音老好了。(술어)
그의 목소리는 매우 좋다.
- c. 他說得老有道理了，咱們都聽他的吧。(보어)
그의 말은 아주 이치에 맞다. 우리 모두 그의 말을 듣자.
- d. 張照片照得老漂亮了。(보어)
사진을 아주 예쁘게 찍었다.

2.4 忒

‘忒’도 티에링(鐵嶺)에서 자주 사용되는 정도 부사중의 하나이다. 《광야·석고(廣雅·釋詁)》에서는 “忒, 差也.”라고 하였으며 부사로서의 용법은 그것의 파생이다. 송원(宋元)시대 이후부터 대량으로 사용되었다. 예를 들면 중국 원대(元代)의 희극작가 관한경(關漢卿)의 《두아원(竇娥冤)》에서는 “後嫁婆婆忒心偏, 守志烈女意自堅。(후에 시집간 시어머니의 마음이 너무 치우쳤지만 뜻을 지키고자 하는 열녀의 뜻은 스스로 굳어진다.)”이라고 하였다. 지금 북방방언에서는 [tʰuai4] 또는 [tʰai4]로 읽힌다. 다른 기타방언에서도 자주 사용되지만 주로 동북지역에서 많이 사용된다. ‘忒’을 부사로 사용하는 기타 방언지역으로는 진방언(晉語), 오방언(吳語), 상방언(湘語), 객가방언(客家話) 등이 있다. 진방언(晉語)에서 ‘忒’을 사용한 예를 들면 馮苓植의 《落鳳植》에서는 “瞧瞧這驢模樣兒, 身子忒小, 全身就扛著個可笑的

大腦袋了²⁾。(이 당나귀의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바라, 몸은 너무 작고 온몸에 단지 우스꽝스러운 큰 머리만 메고 있다.) ” ‘忒’는 표준어 ‘太’에 해당되는 정도 부사로서 정도가 일정한 한도를 지나치거나 감탄을 나타내며 주로 구어체에서 사용된다. 또한 문장 속에서 ‘好·漂亮·高興·聰明’과 같은 표면적으로 긍정적인 표현의 형용사는 ‘忒…了’의 형태로 사용되어야 하며 ‘忒A’의 형태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9) a. 老哥們兒都聚在一起忒不容易了。
친구들이 한 곳에 모이는 것 너무 힘들다.
b. 這書忒厚了, 啥前兒(什麼時候)看完啊。
이 책 너무 두꺼워서 언제 다 볼 수 있어.
c. 忒埋汰了, 收拾收拾吧。
너무 더럽다. 청소 좀 하자.
d. 這人忒有意思了。
이 사람 너무 재미있다.
e. 天兒忒黑了, 啥(什麼)也看不見。
날이 너무 어두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f. 這人忒不講理了, 就知道大聲兒嚷嚷(叫喊)
이 사람은 이치를 따지지도 않고 큰소리 지르는 것 밖에 모른다.

예에서 보면 ‘忒’는 주로 형용사와 결합하여 사용되며 음절수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또한 동사와도 결합할 수 있으며 ‘有+명사’와 같은 동목구조도 수식할 수 있다. 이때 명사는 일반적으로 추상적인 것이다. ‘忒’앞에 부사 ‘也’를 넣어서 사용할 경우에는 어기가 더욱 강해지거나 원망·꾸짓음·책망을 나타내기도 한다.

- (10) a. 他也忒不是東西了, 只知道要錢, 不知道幹活兒。(책망)
넌 정말 인간도 아니야, 일도 안하고 돈밖에 모르고.
b. 你膽兒也忒大了, 進了派出所還要偷。(꾸짓음)
과출소에 들어가서도 훔치려고 하니 너 담도 정말 크다.

2) 본 예문은 漢語方言詞典 第二卷에서 인용됨.

- c. 你來得也忒是時候了，我們正要吃晚飯呢，你也一起吃點兒吧。(강조)
너 정말 때에 잘 맞춰 왔다. 우리 마침 밥 먹으려고 하는데 너도 같이 먹자.
- d. 這衣服也忒大了，咋穿啊?(원망)
이 옷 너무 크다. 어떻게 입어?
- e. 你也忒有能力了，這麼難的事兒也讓你搞定了，眞行。(강조)
너 정말 능력 있다. 이렇게 어려운 일도 해결하다니 정말 대단하다.

3. 賊·倍兒·老와 很의 비교

3.1 ‘賊·倍兒·老’의 공통점과 차이점

‘賊·倍兒·老’는 모두 티에링(鐵嶺)지역 구어체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정도부사이다. 또한 모두 매우·아주·몹시에 해당한다. 하지만 ‘賊·倍兒·老’의 일반적인 사용법에 있어서 공통점도 있을 뿐만 아니라 차이점 또한 있다. 그럼 ‘賊·倍兒·老’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賊·倍兒·老’의 공통점으로는 우선 ‘賊·倍兒·老’는 모두 성질형용사를 수식할 수 있다. 앞서 설명했듯이 성질형용사는 ‘小·大·壞·胖·高’ 등과 같이 사물의 속성을 나타내며 판단성이 있는 형용사를 말한다. 또한 형용사가 단음절이든 다음절이든 상관없이 모두 ‘賊·倍兒·老’의 수식을 받을 수 있다.

둘째, ‘賊·倍兒·老’는 모두 사람의 심리를 나타내는 심리성 동사를 수식하여 사용할 수 있다. 또한 ‘賊·倍兒·老’는 조동사 또는 동빈구조도 수식할 수 있다. 조동사의 예를 들면 ‘會·能·想’ 등이 있으며 동빈구조인 어휘 예로는 ‘有意思·講衛生·有辦法’ 등이 있다.

‘賊·倍兒·老’의 차이점으로는 우선, ‘賊·倍兒’이 문장 속에서 술어로 쓰여 질 때 어기조사 ‘了’의 수식을 받지 않고도 문장을 성립할 수 있지만 ‘老’는 반드시 어기 조사 ‘了’를 사용해야만 문장이 성립될 수 있으며 성질의 변화와 긍정적인 어기를 나타낼 수 있다.

둘째, ‘賊·倍兒·老’는 반복할 때 모두 그 뒤에 따라오는 중심어와 함께 반복을 해야 한다. ‘賊’은 그 뒤에 따라오는 중심어와 함께 반복함으로써 의미가 더욱 강해진다. ‘倍兒·老’도 반복함으로써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가 더욱 강해지지만 ‘倍兒’과 ‘老’는 반드시 ‘的’ 혹은 ‘了’가 있어야만 문장이 성립될 수 있다. 하지만 ‘賊’은 ‘的’가 없어도 문장이 성립된다. 즉 ‘倍兒A倍兒A的·老A老A了·老A老A的’의 형식으로 반복해야 한다.

3.2 ‘賊·倍兒·老’와 ‘很’의 비교

티에링(鐵嶺)방언에서 ‘賊·倍兒·老’는 모두 ‘很’에 해당되는 정도부사로 사용되고 있으며 모두 구어체에서 사용되고 있다. 이들은 모두 성질형용사, 일부동사, 동사구와 결합하여 사용되고 있지만 일부 사용법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 그렇다면 이들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겠다.

첫째, 부사는 일반적으로 형용사 동사를 수식할 수 있지만 명사성분은 수식할 수 없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사자성어는 ‘很’의 수식을 받지 않는다고 여겨진다. 하지만 최근 구어(口語)에서 사자성어가 정도부사 ‘很’의 수식을 받고 있음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천 웨이란(陳衛蘭 2002)에 의하면 사자성어의 의미는 심층(深層)의 의미와 표층(表層)의 의미로 나눌 수 있다. 표층의 의미는 사자성어의 본래의 의미이고 심층의 의미는 사자성어가 사용과정에서 비유의(比喻義)와 인신의(引伸義)가 생기게 되었다. 표층의 의미는 사자성어의 구조에 따라 명사성, 형용사성, 동사성 사자성어로 나눌 수 있으며 심층의 의미는 원래 의미의 기초에서 어의(語義)의 전의, 변화로 인해 어휘의 품사에 변화가 일어나 형용사성이 되었으며 어느 정도의 의미도 갖게 됨으로써 일반적인 어법원칙에서 벗어나 정도부사의 수식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하였다. 라이한강(賴漢綱 1982)도 방식·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성 사자성어의 예로써 ‘直截了當地·莫名其妙·平易近人·提心吊膽·心安理得’ 등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티에링(鐵嶺)방언에서 사용하는 정도부사 ‘賊·倍兒·老’는 모두 사자성어를 수식할 수 없다.

- (11) a. 成王敗寇, 這個詞很直截了當地描述了中國政治生態的現象。
(搜狐博客 2006-8-11)
'成王敗寇', 이 어휘는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중국의 정치적 생태 현상을 묘사했다.
- a-1. * 成王敗寇, 這個詞(賊/倍兒/老)直截了當地描述了中國政治生態的現象。
- b. 最近這裏發生了多起案件, 住在這裏的人肯定很提心吊膽。
최근 여기에 여러 개의 사건이 발생하여 여기에 사는 사람들은 분명 아주 마음을 졸일 거야.
- b-1. * 最近這裏發生了多起案件, 住在這裏的人肯定(賊/倍兒/老)提心吊膽。
- c. 當時她已經有些名氣了, 但她很平易近人。
그때 그녀는 이미 꽤나 명성이 있었지만 그녀는 아주 겸손하고 친절했다.
- c-1. * 當時她已經有些名氣了, 但她(賊/倍兒/老)平易近人。

둘째, '很'은 형용사의 뒤에 得와 함께 쓰여 정도가 매우 높음을 나타낼 수 있다. 왕 리(王力 1984)에 의하면 '很'의 어원은 명확하지 않아서 아마도 형용사에서 변화된 것이기 때문에 가끔 수식어(次品)가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他實在可惡得很。(그는 정말 알밋다.)'이다. 이건 유일한 예외이며 원칙적으로 부사는 수식어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끔 예외가 있을 수 있다."고 하였다. 하지만 '賊·倍兒·老'도 정도 보어로는 사용할 수 있으나 '好得很'의 형태로는 사용 할 수 없다. 이를 통해 우리는 '很'의 기능적인 면에 있어서 '賊·倍兒·老'보다 광범위함을 알 수 있다.

- (12) a. 他的病沉重得很。
그의 병세가 아주 나빠졌다.
- b. 近來忙得很, 都沒有時間坐下來好好吃飯。
최근 그는 너무 바빠서 앉아서 밥 먹을 시간조차도 없다.
- c. 小王最近好得很, 我也放心了。
샤오왕은 요즘 아주 잘 지내니 나도 안심이다.

셋째, 우리홍(吳立紅, 2006)에 의하면 ‘很’은 일반적으로 성질 형용사와 결합하여 사용되지만 일부 상태형용사와도 결합하여 사용될 수 있다. ‘很’의 수식을 받을 수 있는 상태형용사로는 첫 번째 유형으로는 형태소 A가 형태소 B를 수식하는 어휘이다. 예를 들면 ‘雪白·冰涼·冰冷·筆直·火熱·火紅’ 등이 있다. 형식(形式)적으로 보면 이 유형은 편정식(偏正式)으로 앞에 오는 형태소가 뒤에 오는 형태소를 수식하고 제한하다. 의미적으로 보면 대부분 비유이며 ‘像A一樣B’에 해당하며 어휘에 실제적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정도를 포함하고 있다. 두 번째 형태소 A자체가 이미 높은 정도를 표시하는 어휘이다. 예를 들면 ‘湛藍·通紅·深紅·鮮紅·飛快·瑰麗’ 등이 있다. 셋째 BAA형태로 사용할 수 있는 형용사로 형용사의 생동형식(生動形式)임으로 BAA의 변형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滾圓·噴香·錚亮·稀爛’ 등이 있다. 네 번째 유형은 주로 색깔의 구체적인 종류를 묘사하는 형용사로서 ‘A의B’에 가까우며 어휘 자체는 정도를 나타내지 않지만 비교 대상이 있어 정도가 상대적으로 고정되어 있기에 사용할 때 약화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銀白·灰白·碧綠·翠綠·金黃·鐵鏽’ 등이 있다. 다섯 번째 유형의 어휘도 색깔의 구체적인 종류를 묘사하는 형용사이지만 A가 다른 것과 구별되는 특징으로서 어떤 색깔 중에서 특별한 한 종류를 구분해 내는 것이다. 예를 들면 ‘粉紅·嫩綠·焦黃·枯黃·昏黃’ 등이 있다. 하지만 ‘賊·倍兒·老’는 오로지 상태형용사와만 결합하여 사용될 수 있다.

- (13) a. 昨天北京下了一天的雪，早上起來的時候就發現外面是一片很雪白的世界。(博客 2005-04-22)
어제 북경에 하루 종일 눈이 내렸다.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바깥이 새하얀 세상이 된 것을 발견했다.
- b. 有的公交車行車起來又時慢得比自行車還慢，而有時行車卻很飛快。(貴陽日報 2004-3-14)
어떤 버스는 가끔 자전거보다도 느리게 운전하지만 어떤 때에는 쏜살같이 운전한다.

넷째, ‘很’은 명사와 결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정도부사와 명사가 결합하여 사용

되는 것을 일반적으로 '품사의 활용(辭類活用)'으로 해석한다. 즉 명사가 임시로 형용사로 활용되는 것으로 수식으로 볼 수도 있다. 부사가 명사를 수식하는 것을 주로 세 가지 관점으로 해석하고 있다. 첫 번째 후 명양(胡明揚 1992)의 '辭性轉變論'으로 부사의 특징에서 출발하여 부사 '很'은 강제적으로 명사의 기능과 의미를 변화하여 임시적으로 형용사적인 기능을 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두 번째 장 췌지양(張伯江 1994)의 '功能遊移論'으로 명사의 특별한 기능에서 출발하여 명사 활용의 근본적인 원인은 명사의 공간속성(空間屬性)에 기인한 것이며 부사가 형용사를 수식하는 현상은 바로 명사의 기능이 변화하였기 때문이다. 세 번째 탄 징춘(譚景春 1998)의 '語義量度論'으로 명사의 의미가 품사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지에서 출발하여 이런 유형의 명사가 '量度義'가 있거나 혹은 임시로 '量度義'가 부여되어 부사가 명사의 기능을 변화시켰다고 하였다. 하지만 '賊·倍兒·老'은 명사와 결합하여 사용할 수 없다.

- (14) a. 我總是很阿Q地安慰自己,希望他的世界裏那一半的位置是空的,空空的,那我就總有希望 可是是什麼希望呢? (新浪 2007-12-04)
나는 항상 아Q처럼 스스로 위로한다. 그의 세계에 그 반쪽은 비어 있기를, 텅 비어 있기를 바란다. 그럼 나도 항상 희망이 있다. 하지만 희망이란 무엇일까?
- b. 這樣搭配很淑女,腰間的蝴蝶結也是很有女性特點呢。
(沈陽網 2007-11-25)
이런 코디는 아주 여성스러우며 허리의 리본도 아주 여성적인 특징이 있다.

4. 맺음말

장 위진(張玉金 1994)에 의하면 갑골문(甲骨文)중에 정도부사는 오로지 '大'뿐이었다. 예를 들면, 《맹자·등문공상(孟子·滕文公上)》에서의 “陣相見許行而大悅(진상은 허행을 만나게 되어 크게 기뻐하였다.)”이다. 주(周)나라 때에 정도부사로

‘孔’이 나타났지만 사용빈도수가 높지는 않았고, 춘추(春秋)시대에 와서 정도부사 ‘甚’이 나타났었다. 중고(中古)시대에 ‘殊’가 정도부사로 많이 쓰여 졌으며 당(唐)나라 때 와서야 비로소 ‘非常’을 정도부사로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설문해자(說文解字)》의 ‘老’에 대한 해석에 의하면 “考也, 七十曰老, 從人從匕, 言須發變白也。(‘늙다’라는 뜻이다. 七十을 ‘老’라고 한다. 人과 匕를 구성요소로 하고 있으며 수염과 머리털이 희게 변한 것을 말한다.)”라고 하였다. 즉 이때까지만 해도 老는 형용사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양 수민(楊淑敏, 1994)에 의하면 ‘老’는 송(宋), 원(元)시대에 와서야 비로소 부사로서 정도가 매우 심함을 나타내기 시작했다고 한다. 예를 들면 《청평산당화본(淸平山堂話本)》에서는 “倘留他在家, 大官人回來, 也有老大的口面。(만약 그를 집에 머물게 한다면 나리가 돌아와도 큰 말다툼이 있을 것이다.)” 이라고 하였다. 忒도 마찬가지로이다.

《설문해자(說文解字)》에 의하면 忒는 “忒, 更也. 段注: 差也, 特也. 參差不相值也。(忒는 ‘고치다’라는 뜻이다. 단옥재의 주석에 의하면 ‘다르다’, ‘특별하다’라는 뜻이다. 들쭉날쭉하여 값이 서로 같지 않다.)”라고 하였다. ‘忒’의 본의도 ‘변경하다, 변동하다’로 동사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로부터 우리는 ‘賊·倍兒·老·忒’는 실사에서 점차 허사로 변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정도부사도 시대에 따라 점차 변화되어 왔다.

티에링(鐵嶺)방언에서 사용되는 정도부사도 일반적으로 ‘賊·精·稀·老·溜·確·惡·杠·忒·可·死’등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정도 부사가 바로 ‘賊·倍兒·老·忒’이다. ‘賊·倍兒·老·忒’는 모두 ‘很’ 또는 ‘太’에 해당되며 모두 정도가 높음을 나타낸다. 본문에서는 ‘賊·倍兒·老·忒’가 어떤 의미로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살펴보고 很과는 또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종합해보면 우선 ‘賊·倍兒·老·忒’는 모두 형용사에 대한 요구가 엄격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성질형용사와 결합되어 사용되며 단음절이든 다음절이든 상관없이 모두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심리성 의미자질이 있는 동사와 결합하여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동사구와도 결합하여 정도가 높음을 나타낼 수 있다. 또한 모두 중복하여 사용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 뒤에 따르는 형용사와 함께 중복한 후에 ‘的’나 ‘了’를 사용해야 문장이 성립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표준어의 심리적 지위는 방언보다 높다. 그래서 한국에서

표준중국어 연구에 비해 중국 방언에 대한 연구는 아직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미약한 상태이다. 하지만 중국은 국토가 넓고 지역 간 방언과 문화 차이가 심하므로, 각 지역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의 문화와 방언에 대한 연구가 필수적이다. 이 논문은 티에링(鐵嶺) 방언에서 사용되는 정도부사 '賊·倍兒·老·忒'를 제시·논의하였으며, 표준중국어와의 비교를 통해 지역적 특징을 부각시켰다는데 의의가 있다. 하지만 이 논문은 티에링(鐵嶺)방언의 정도부사만을 분석한 것이므로 좀더 전체적인 모습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른 품사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와 통시적 관점에서의 분석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러므로 차후의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해서 지속적으로 연구할 예정이다.

참고 문헌

1. 서적류

- 北京大學中文系, 《現代漢語虛詞例釋》, 北京: 商務印書館, 1986.
 陳復華主編, 《古代漢語詞典》, 北京: 商務印書館, 2000, p. 272.
 陸儉明·馬真, 《現代漢語虛詞散論》,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1985.
 맹주억, 『현대중국어 어법』, 서울: 청년사, 1992.
 王力, 《王力文集 二卷》, 濟南: 山東教育出版社, 1984~5, PP. 171. 189~191
 許寶華·宮田一郎主編, 《漢語方言詞典 第二卷》, 北京: 中華書局, 1999.
 徐復, 《廣雅詁林》, 南京: 江蘇古籍, 1992 .
 許慎 撰, 段玉裁 注, 《說文解字注》, 上海: 上海古籍, 1988.
 張玉金, 《甲骨文虛詞詞典》, 北京: 中華書局, 1994, p.14.
 張志公, 《現代漢語 中冊》, 北京: 人民教育出版社, 1985, PP. 10~11
 朱德熙, 《語法講義》, 北京: 商務印書館, 2004, pp. 73. 192.
 中國社會科學院語言研究所古代漢語研究室, 《古代漢語虛詞詞典》, 北京: 商務印書館, 1992.

2. 논문류

- 常純民, 〈試論東北方言程度副詞〉, 《齊齊哈爾師範學院學報》, 第三期, 1983. pp. 115. 117.
- 陳衛蘭, 〈“程度副詞+成語”組合中的語義選擇〉, 《語文知識》, 2002, p.19
- 胡明揚, 〈“很激情”“很青春”等〉《語文建設》, 第四期, 1992, p. 35.
- 譚景春, 〈名形轉類的語義基礎及相關問題〉, 《中國語文》, 第五期, 1998.
- 賴漢綱, 〈“很”用法初探〉, 《語言教學與研究》, 第三期, 1982, p. 93.
- 吳立紅, 〈現代漢語程度副詞組合研究〉, 暨南大學博士學位論文, 2006, pp. 26. 63~65
- 楊文全·劉靜, 〈試論黑山方言“很”類程度副詞的用法〉, 《四川師範學院學報》, 第四期, 2003, p.64
- 楊淑敏, 〈元明時期新興副詞探析〉, 《山東社會科學》, 第四期, 1994, P. 81
- 張伯江, 〈詞類活用的功能解釋〉, 《中國語文》, 第五期, 1994.

<Abstract>

A Comparative Study of Degree Adverbs in the Tieling Dialect

Li Xue-shun

There are a lot of degree adverbs in the northern dialect, such as "Zei, Jing, Xi, Lao, Liu, Que, Wu, Kang, Ke, Si, and so on. Except for Kang, all these dialect are still commonly used. In this study, we select four of them and discuss, Zei, Beir, Lao, and Er, which are most commonly used. In the northern dialect, Zei, Beir, Lao, and Er are equal to Hen in Putonghua. We make a

discussion of Zei, Beir, Lao, and Er, about the usage, the syntax function, and the sameness and difference between Zei, Beir, Lao, and Er in dialect and Hen in Putonghua.

As degree adverbs, Zei, Beir, Lao, and Er are usually used together with adjectives, no matter they are single or double syllable, that is to say, Zei, Beir, Lao, and Er have no strict requirement on the number of syllable of adjectives. Zei, Beir, Lao, and Er can also be used together with verb-object structures and verbs describing one's mood. Zei, Beir, Lao, and Er are not strict with the selection of central words. Except for Er, they can be overlap, normally together with the central word. When overlap, they should be used in pairs with some auxiliary word of mood, like De and Le.

Zei, Beir, Lao, and Er are also different from Hen in Putonghua on the usage. Hen can be used as a modifier of some phrase. But with Zei, Beir, Lao, and Er, they can not. Moreover, Zei, Beir, Lao, and Er can be used as complements of degree, but Hen can not be use as that. For example, “他實在可惡的很。” can not be said like “他實在可惡的賊。” Additionally, Hen can be used to modify some nouns and some status adjectives, but Zei, Beir, Lao, and Er can not. Therefore, degree adverbs in Putonghua are used more widely on the grammar function and on the usage range.

Key words Tieling Dialect, Degree Adverb, Usage Analysis, Syntax Function

투 고 일 : 2007년 11월 10일 / 게재확정일 : 2008년 2월 15일